濠洲韓人文學硏究*

윤 정 헌**

〈目 次〉

Ⅰ. 序 論
Ⅱ. 濠洲의 韓人文學
1. 濠洲韓人 文學의 形成背景
2. 濠洲韓人의 韻文文學
3. 濠洲韓人의 散文文學
Ⅲ. 結 論

〈요 약〉

본고에서는 호주의 한인문학을 운문과 산문의 갈래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천한 이민사에서 기인한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호주의 한인문학이 찬란히 開花할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본다.

첫째, 호주 한인의 운문문학 작품들은 이민에서 비롯된 심리적 공황과 정착의 과정을 호주사회의 특수성에 의탁해 내성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호주한인의 삶이 정착과정에서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해소하면서 점차 적응의 단계로 들어서는 도정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현실의 정서적 반영에 충실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호주 한인의 산문문학은 운문문학의 서정성을 보다 역동적으로

* 이 논문은 재호 한인문인협회 김오 회장님 이하 재호 문인 여러분의 헌신적 협조에 힘입었음을 밝히며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 경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환시키면서 다양한 삶의 편린들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소박한 일상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사적 허구'(plausibility)의 세계로 접어들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호주문학 속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발군의 작가, 돈오 김을 가지게 된 것은 호주 한인문학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Abstract>

A Study on Korean Literature in Australia

Youn, Jeong-Heun
(Kyungil University)

Concluding on Korean literature in Australia is still early because of a short history.

Therefore, in this treatise I will survey within the limit of formal genre.

In verse literature, it introspectively formalizes psychological panic and settle-process of immigrant by depending on speciality of Australian society. This phenomenon stands for panoramic and troublesome lifes of Koreans in Australia.

In prose literature, it more impressively diverts lyricism of verse literature and represents various aspects of lifes as immigrant. But it has a limitation that didn't advance to province of plausibility as deviation from daily dogma.

Despite of this margin, appearance of prominent novelist, Don'o Kim is very fortunate as Korean literature in Australia.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Ⅰ. 序 論

白濠主義(White Australianism)를 표방하며 "앵글로 화이트"(Anglo White) 만의 낙원을 구가하던 오스트레일리아(이후 濠洲로 지칭)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며 그 굳은 빗장을 풀고 多民族多文化 社會로 전환한 지도 이제 언 30년이 되어간다.[1] 실제로 濠洲의 거리를 걷다 보면 서로 다른 피부색의 인종들이 자연스레 어깨를 맞대고 활보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느 장소, 어느 직장에서도 세계 각국 출신의 이민자들이 독특한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며 자기 관심사와 직무에 몰두하고 있는 광경들을 대할 수 있다.[2] 이처럼 코스모폴리틱한 호주의 移民社會 속에서 우리의 韓人社會도 이제 그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획을 그으며 잠재력을 행사하고 있다. 호주 최대의 도시인 시드니(Sydney)를 비롯해 빅토리아주의 멜번(Melborne), 퀸즈랜드주의 브리즈베인(Brisbane)과 골드코스트(Gold Coast),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애들레이드(Adelaide),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퍼스(Perth), 그리고 태즈매니아주의 호바트(Horbat)와 수도 캔버라(Canberra)에 이르기까지 한인의 수는 줄잡아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아직도 백호주의의 기세가 등등하던 1961년, 재호작가 돈오 김이 유학생의 신분으로 건너와 최초로 정착한 것을 효시로, 73년 白濠主義의 폐지 후 일군의 지질학자, 헬리콥터 조종사, 교사 등 소수의 전문기술자 이민이

---

1) 1851년 빅토리아주에서의 골드러시를 계기로 중국인 채광 노무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에 대한 위기감에서 1860년 이래 白濠主義 정책을 펴 왔던 濠洲는, 노동력 부족을 절감하고 1973년부터 이를 정책적으로 폐지했으며, 1986년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른다.

2) 원래 영국의 식민지로서 아일랜드계 켈트족의 유배지로 시작되었던 호주의 이민사는 골드러시 이후, 비아일랜드계의 영국 본토 앵글로 화이트의 자유이민이 급증하면서 급격히 백인중심의 사회를 정착시키게 됨에 따라 백인계의 타국으로부터의 자유이민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백호주의 폐지 이후엔 아시아,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의 이민이 쇄도하고 특히 세계의 분쟁지역(베트남, 중동, 보스니아, 이디오피아, 구소련국가들 등) 출신의 긴급피난민의 유입도 상당하여서 문자 그대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실제로 근래의 통계에 의하면 호주인 5명 중 1명은 외국 태생이고, 최소한 5명 중 1명은 부모나 그들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이라고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시도된 이래 실로 근 30년 만에 형성된 또 하나의 해외 한인촌으로, 우리의 근대 해외이민사 중에서도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3)]

그간 한국과 호주 양국 간의 대외적 관계도 1965년 9월의 무역협정 체결에서부터 1997년 8월의 핵물질 재이전 교환각서에 이르기까지 점차 비중을 더해 왔고, 근자에 와선 한국이 대호주 수입실적에 있어 전체 무역대상국 중 3위(98년 현재 유연탄, 귀금속, 철광 등을 포함해 $4,614,716,000어치)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교역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수치의 성장과 관계의 지속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주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示唆하고 있다.

즉 이에는 쌍방적 관점이 필요한 바, 호주당국 및 호주인들의 몰이해와 무관심에 못지 않게 우리 측의 소극적이고 비자주적 자세에서 기인한 결집력의 부족도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문제는 외교채널을 비롯한 다각적 모색을 통해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측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濠洲韓人의 正體性 確立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술한 기조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호주한인의 정신적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호주지역 한인문학의 실상을 고구함으로써 현상적 실체를 점검

3) 이후, 월남 패망 직전인 1974년부터 파월기술자 500여명이 휘트럼(Whitlam) 정권의 비자간소화 정책에 의거해 관광비자로 대거 입국한 것을 계기로, 75년엔 천 단위 이상으로 이민이 급증하였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의 대부분이 76년의 사면령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 내 가족을 초청하였다. 그 후, 남미체류자 및 중동취업근로자들이 계속 입국하였고 이들이 80년의 사면령에 의해 영주권 취득 후 가족을 초청함에 따라 이민자의 수는 6,000명 수준으로 육박하였다. 80년대 이후엔 입양가족 초청이민과 취업 및 사업.투자이민, 유학 등 그 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민자의 수도 급증하여 1986년 경부터 만 단위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면서 부터는 호주의 경기침체에 따른 이민 쿼터의 감소 및 이민심사 강화, 그리고 한국경제의 상대적 상승과 이에 따른 역이민 증가 등으로 최근의 몇 년간 이민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상은 2000년 9월 현재, 시드니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홈페이지(www.korconsyd.org.au) 중 「외교관계」편을 참고 하였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고 나아가 새 시대의 바람직한 한인상을 정립케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Ⅱ. 濠洲의 韓人文學

1. 濠洲 韓人文學의 形成背景

호주의 한인문학은 일천한 이 나라의 建國史 및 우리 移民史와 맞물려 오랫 동안 개별적 탐색의 도정에 머물러 있었다. 1961년 유학생의 자격으로 건너 온 돈오 김이 아시아인 최초로 영주권을 획득한 후, 호주의 유력지들에 영문으로 작품을 발표하다가 1968년『내이름은 티안』(My name is Tian)이란 영문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을 호주 한인문학의 공식적 출범으로 본다면 그 역사는 30여 년이 되는 셈이다. 70년대 중반 백호주의의 철폐 이후, 호주한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수도 눈에 띄게 늘어 났지만 문필을 업으로 하는 전업 문인은 보기 어려웠고 그 나마도 가시적인 문단이나 한인문학의 집단적 권역을 형성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극히 소박한 형태의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한국에서 이민 온 일부 문인들이 시드니를 중심으로 동인 성격의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효시로 1989년 이무, 윤필립 등의 문인들에 의해 재호문인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회칙정비와 회원배가운동으로 내실을 도모한 끝에 1996년 7월 재호한인문인협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호주한인문학의 문단적 윤곽인 셈이다.[4]

일반적으로 移民者[5]들의 정서적 전이과정은 4단계로 나뉘어 설명되어진

4) 재호한인문인협회는 96년 말부터 회원들의 작품들을 엮어 회지「재호한인문인협회」를 발간, 현재 10여 호까지 나온 상태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용의 뉴스레터(newsletter)에 불과했다. 이에 금년 연말 발간을 목표로 회원들의 연례 작품집『재호한인문학』(단행본) 창간호가 현재 편집 단계에 있다. 그간 재호한인문인협회는 이무, 이효정, 윤필립 등 초창기 체제 정립에 애쓴 회장들을 거쳐 김오 시인을 현회장으로 맞아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5) 이민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가는 행위,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의 땅에서나 옮겨가는 땅에서나 이들을 보는 관점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즉 이민직후의 들뜬 도취상태(Initial Euphoria)에서 이국적 상황의 이질성에 대한 위화감과 적의의 단계(Irritation and Hostility)와 점차적인 조정(Gradual Adjustment)의 단계를 거쳐 완전적응(Adaptation)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4단계론[6]이 바로 그것으로 대부분의 이민문학이 이민에서 비롯된 심리적 공황과 정착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때, 이민문학의 소재적 범주도 결국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상정된다.

특히 이 도정에서 주목되어지는 것이 급격하고도 격렬한 심리적 정서적 혼란상을 일컫는 이른바 "문화적 충격"(Culture Shock)으로서 이민문학에서 가장 깊이있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다.[7] 문제는 이민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 나갔으며, 또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는 어떠했는가를 문학적으로 예각화했느냐는 것인데 호주한인문학에 있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 한인작가들이 싫든 좋든 조국을 등지고 이국의 땅에 그들의 새로운 둥지를 틀었고 그 과정에서 숱한 내면적 풍경들을 축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항을 달리하여 이들의 내면적 풍경을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의 장르별로 나눠 살펴본다.

2. 濠洲韓人의 韻文文學

호주한인문학은 어쨌든 移民文學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前言한 바처럼

구세계로부터의 도망자이자 신세계의 발견자 혹은 항해자이자 모험가들이다. 호주한인들의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민자상 {W.Q.Boelhower, 「The Brave New World of Immigrant Autobiography」 (The Society of the Multi-Ethnic Literature of U.S.A, 1982) p.11}이 어떻게 변용되어졌는지 자못 흥미롭다.

6) L. Robert Kohls , 『Survival Kit for Overseas Living』 64-67면.(Intercultural press, U.S.A, 1979)

7) 일반적으로 "문화적 충격"이란 용어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조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일부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순기능적 측면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애들러(Peter Adler) 같은 이는 문화적 충격을 "고차원의 자각 및 개아 성장으로 이끄는 심오한 학습경험"(profound learning experience which leads to a high degree of self-awareness and personal growth)으로 해석한다. ;L . robert, Ibid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민자의 신세계에서의 정착과정이 호주한인문학의 주된 소재가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점에서 호주한인의 운문문학처럼 이민자의 정서를 절실히 대변하는 장르는 다시 없을 것으로 상정된다.[8] 호주의 한인이민은 일본이나 만주 혹은 중앙 아시아 지역의 이민1세대들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이 자발적인 경제이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移民이란 상황이 가져다주는 원초적 乖離感은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시드니 항구의 탐조등이 내 등줄기를 훑을 때
> 난 알았지 이것이 운명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 위장된 평화의 적막을 찢으며 사이렌이 울릴 때
> 배로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 ----- 중 략 ----
> 포수의 총탄을 몸으로 받으며 매달리는
>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자유를.[9]

쉽사리 신세계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없는 이민자의 방황을 불법체류자의 비애에 대비시키는 위의 싯구는 정책적으로는 다민족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교묘히 유색 아시아 인종을 차별하는 호주당국의 이중성과 그로 인한 좌절감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노동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백호주의를 철폐하여 유색인종의 무차별 이민을 허용하긴 했으나 유입된 이민들은 어디까지나 백인(Anglo White)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존재에 불과했다. 당연히 아시아계 이민들은 최하층 그룹을 형성하여 백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허울 뿐인 다민족주의의 둘러리를 서야만 했다.

---

8) 시드니의 어느 한인단체 행사 팜플렛에 적힌 다음의 의미심장한 문구는 타국 땅에서 고군분투하는호주한인들의 정신적 현주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떠밀려서 왔더라도 떠밀려 살지 않기 위하여 씨뿌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 맘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오천년의 쓰라린 역사 컵이지 않는 질경이처럼 이 땅의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수 많은 형제들과 어깨를 걸고 당당하게 거대한 이 대륙에 꿋꿋이 서기 위하여 튼튼한 뿌릴 땅속 깊이 내려야 한다."

9) 황수환, 「무제」, 『시드니에 내리는 눈』(1997, 오늘의 책), 37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 전 략 -- 실제로는 세계 경제공황의 타격을 이유로 이민자의 수를 대폭 축소시켰으며, 특히 비유럽 국가로부터의 이민은 거의 제한된 상태였다. 어쩌면 호주의 아시아화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중 략 ---- 실제적으로 이당시 동남아시아로부터 다수의 난민이 호주로 입국했다. 그것은 어쩌면 국제압력에 못 이긴 호주정부의 처사였지만, 다민족문화 확장사업은 소수민족 중산층의 보수정치 지향에 적당히 협조하면서 국민의료보험제도(Medibank) 삭제로 인한 물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논쟁도 있다. 즉 정치적 보수주의를 다문화진보주의로 둔갑시킴으로써 실제 소수민족 중산층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은 증가되었지만 중산층 이하의 노동하는 이들은 더욱 실업과 저임금 그리고 주택문제로 시달려야 했으며 호주 전체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10)

다음의 시편들에서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일년에 단 며칠, 아니,
꼭 하루라도 좋아
시드니에도 펑펑 하얀 눈이 내렸으면----
---- 중 략 ----
그리운 이 모습 훔쳐보려 까치발 서던
옥분이네 사립문 안마당에 쌓이던

뭐 꼭 그런 눈이 아니라도 좋아

목수일 하다 2층에서 떨어져 허리 다친 박씨 아저씨
홀아비 냄새 풀풀 나는 캠시 하숙방 창가에

3년째 신발 공장서 일하다 어깨 결리고 머리 빠져
드러누운 스트라스필드 정씨 아주머니
두고 온 자식 생각으로 뿌연 눈망울 속에

불법 체류 4년에 고향 길이 꿈길이 됐뿌렀다고
못 배운 놈은 쓰벌 어딜 가나 또옥 같다고
깡소주 몇 잔에 눈알 부라리는 동팔이 녀석
기름 때 엉겨 붙은 떠꺼머리 위에

10) Centre for Multicultural Studies, 「The Construction of Ethnicity 1972 ~ 1987」, 『Mistaken Identity』 (Woolongong University Press, 1990), 34-35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살포시 내려앉은 하얀 눈이
시드니에도 하루쯤은 내려 줬으면----
--- 후 략 ----- 11)

캠시에 내리는
어둠을 비켜가며 바람이 분다.
---- 중 략-----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던
허수아비, 우리도 이미 가슴을 잃고
넘어져 버린 허수아비
떠나고 또 떠나왔는데
캠시의 여름은 푸른 검정색
발이저리다. 어디선가
다른 꿈이 팔려가 수용되었다.
낙원은 더욱 멀다.
몇몇이 쫓겨가던 밤에
더 많은 몇몇이 김포를 떠나고 있다.
목적지 시드니 캠시
---- 후 략----- 12)

위의 시에서 거론되고 있는 캠시와 스트라스필드는 시드니의 한인 밀집촌이며,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이민의 길을 택했던 한인들이 불법체류의 멍에를 쓰고 쫓겨가는 서글픈 밤에 잠 못이루는 박씨 아저씨, 정씨 아주머니, 동팔이는 이민의 힘든 굴레를 벗어 던지려 몸부림치는 한인들이다. 이들에게 호주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의 곡선미가 아름답고, 하버 브리지의 야경이 찬란한 낭만적 이상향이 아니라 서울의 여느 달동네와 다름 없는 처절한 생의 공간일 따름이다.

나는 울었네
그해 겨울 따뜻한 나라에서
우리는 먼저 오페라 하우스를 돌아보고
그들의 철각 무직한 하버 브리지를 바라보며
역시 러키 컨트리죠 여긴 러키 컨트리예요

11) 황수환, 「시드니에 내리는 눈」, Ibid, 40-41면.
12) 김오, 「캠시」, 『월간문학』(1993.8; 통권294호), 239-240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반전에 그는 이민생활 8년의 아름다운 추억을
들추고 빛내고 시드니항이 유명하지만
진짜는 이 나라의 복지예요 복지
--- 중략 ---
알 수 없습니다. 이들보다 우리는 몇 배 더 노동하고
밤잠을 줄이면서 노심초사하건만 -------
도시의 변두리이건만 삶의 한가운데 선
노랑머리 두 젊은이가 입맞추는 뒤켠에 앉아
편지를 접고 다리를 접고 고개를 묻고
나는 울었네 13)

복지국가, 이상향을 꿈꾸며 이민온 유색인종은 대로변 어디서나 장시간 포옹을 하며 격렬한 키스를 나누는 백인, 그들만의 파라다이스에 그림자를 드리운 밑그림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빈곤과 식민상황으로부터의 도피자들이었던 미주나 일본 그리고 만주 이민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호주 이민들에게 있어서도 신세계에서의 정착은 房外人으로서의 소외감과 좌절14)을 거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미래적 전망 없음'
허기진 20세기를 살다
내내 허기질 것 같은 21세기로
그냥, 떼밀려 건너왔을 뿐
먼동은 여태 트지 않았습니다.
---- 중 략 ------

해피 뉴 밀레니엄!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스러지는 저 불꽃 속으로
당신은 오고 있습니까
외딴 방, 60촉 알전등 아래

13) 박철, 「눈물의 시드니」, 『밤거리의 갑과을』(1993, 실천문학사), 9-11면.
14) 재호 시인 하란사는 그의 시 「흔들리는 행성」(『재호한인문인협회보』;1998. 3)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소외와 고독을 "달리 손쓸 새도 없이 무수한 원형이 변해 버린 실낙원의 파편들"로 상징화하고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불콰하게 취해버린 벗들과
마땅히 기댈 곳 없어, 서로
등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 위해
쾅! 쾅! 지축을 흔들며
당신은 오고 있습니까
---- 후 략 ----- 15)

"뉴 밀레니엄"의 구호도 요란하게 CNN이 생중계하는 시드니 하버의 새 천년 맞이 불꽃놀이의 뒤안길에선 아직도 많은 가난한 이들이 "60촉 알전등"16) 아래 "미래적 전망"을 희구하고 있으며 이들 중엔 안정된 삶을 위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하는 많은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 낯선 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한 그릇의 <밥>을 위해서 밤 새워 청소를 하고, 바다만큼이나 넓은 잔디밭을 깎아 내야만 했다. 문학을 계속해야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선택했던 호주 이민이 생존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려 하고 있었다. 17)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회귀선 너머 지구 반대쪽으로 도망쳐 왔던" 이 시인18)에게 있어서도 호주에서의 이민생활, 그것은 눈 앞에 닥친 생존의 몸부림이었고 자기 정체성의 재확인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민의 먹구름을 헤치고 긴 터널을 빠져 나와 밝은 햇살 속에서 비로소 희망을 보게 된다.

> 떠나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운 것들 모두 채워두고 닫았던 문을 다시는 열어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날이 선 후

15) 윤필립, 「새 천년의 메시아」, 『신동아』(2000년 3월호), 458-459면.
16) 환경보호와 안정기의 소음방지를 위해 호주의 가정에선 형광등보다 전구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17) 윤필립, -책머리에-, 『시드니에는 시인이 없다』(1995, 고려원)
18) 윤필립 시인은 필자와의 방담에서, 온전히 詩作에 몰두할 수 없었던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호주 이민을 결심했다고 담담히 토로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회와 안타까움을 떨치지 못하고 서둘러 결행했던 생의 한 고비의 상처가 화인처럼 남아 뜨겁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는 시야엔 모든 것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문도 그리움도 마을도 이웃도 인정도 고샅길까지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씩씩하게 자라난 상추 들깨 고추 등 푸성귀들이 철없는 아이들의 웃음만큼 싱그럽습니다. 울얕은 마당이 슬금슬금 고물 끝에 매달려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떠나와서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적도의 태양처럼 타 오르고 있음을. 19)

고향을 떠나옴으로써 비로소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을 깨닫게 된 시인의 역설적 자각은 미래에의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결코 쉽게 주저앉지 않을 끈질긴 호주 한인들의 체험적 응집력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민 정착의 4단계[20] 중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위화감과 적의의 상태"(Irritation and Hostility)에 드리운 그림자를 여하히 해소하고 점차 적응의 단계로 들어서는지의 도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濠洲韓人 韻文文學의 현주소로서, 아직은 일천한 호주 한인문학사를 고려할 때 "완전적응"(Adaptation)의 단계로 들어서기까지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정된다.

3. 濠洲韓人의 散文文學

個我의 抒情性에 주력하는 운문문학에 비해 具體的 狀況의 敍事에 치중하는 산문문학의 장르적 특성상 호주 한인의 산문문학은 이민생활에서의 다양한 모습과 이에서 기인한 사색의 표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주에 터전을 두고 살아온 지 십여 년, 그간 여러 번 한국에 다녀왔지만 가장 긴 휴가철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용하다 보니 한국의 가을을 못 본

19) 김오, 「안흥리 1」, 『자유문학』(1999. 12), 302면.

20) 註 6)에서 언급한 바 있는 L. Robert Kohls의 이민 적응의 4단계론을 일컫는 것으로 도취상태, 위화감과 적의의 상태, 점차적 조정의 상태 그리고 완전 적응의 상태의 4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것이 호주에 체재한 연수만큼이나 되게 되었다.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내 정서가 무뎌졌다면 그것은 호주의 가을이 지나치게 짧음에서 온 것은 아닐까.

과문(寡聞)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가을 하늘만큼 높고 파아란 하늘을 본 적이 없다. 유감스럽지만 지금의 한국 도시에서는 심각한 대기 오염 때문에 이전의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 수차례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잿빛으로 짙어가는 하늘을 보고 쓸쓸함을 느끼곤 했다.[21]

시드니의 가을 하늘에서 예전 한국의 청명한 산하를 떠올리는 작가의 순수와 자연에 대한 애착이 이민생활의 고달픔보다는 일상사의 토로를 통해 삶의 진정성과 조우하는 담백한 수필의 한 전형을 보는 듯하다. 수필이 일상생활과 인생체험에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산문문학의 가장 보편적 형태임을 주지시키는 글이다. 호주의 자연은 한국과는 판이하다. 삭막한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각종 가전제품의 조력을 받아 인공적 삶을 영위해야 하는 한국의 도시인들이 처음 호주에서 느끼는 감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호주의 아름다운 환경, 그에서 기인한 자연에의 敬畏感 바로 그것이다. 금방 구름 위로 차오를 것 같은 하버브리지와 두둥실 노 저어 갈 수 있을 것 같은 오페라하우스, 이민의 눈에 비친 신천지 호주는 문자 그대로 녹색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무지개요 환상의 끝에서 어른거리던 신기루이다.[22] 그러나 호주에 사는 한인작가의 마음 한 켠에는 두고 온 고국 산하의 옛적 모습과 낯익은 고향 골목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그동안 나는 결코 내 생애에서 짧다고 할 수 없는 세월을 호주에서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건대 호주를 한번도 내 나라라고 꿈 속에서나마 생각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호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 중 략--- 한국은 지금 한창 피어오르는 봄기운과 꽃샘 추위가 실랑이를 벌이는 이른 봄이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정신없이 불어대는 봄바람에도 나는 훈훈함을 느낄 수 있었고 공해가 심하다는 도심의 인파 속에서도 나는 따뜻한 고국을 만끽할 수 있어서 모처럼 마음의 안온함에 즐겁기만 했다. [23]

---

21) 조종춘, 「다시 시드니 가을에 서서」, 『재호한인문인협회보』(1998. 6; 재호한인문인협회), 5면.

22) 윤필립, 『시드니에는 시인이 없다』(1995, 고려원), 14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모처럼 고국 나들이를 한 작가에게 한국은 더 없이 안온한 곳이다. 가는 곳마다 서툰 영어 때문에 눈치 볼 일 없이 어디에서고 "귀는 막힘 없이 번쩍번쩍 트여서 신이 나고" 왁자지껄한 재래시장의 아낙네들의 모습에서 "비록 가난의 때는 묻어 있어도 주눅들어 사는 듯한 눈치는 전혀 엿볼 수 없어" 웬지 마음까지 든든하다. 하지만 고국 나들이에서 얻은 이러한 安穩함은 오래 가지 않는다.

> 며칠 동안 신바람이 나서 외출이 잦았던 내게 이상현상이 온 것은 한국에 도착하고 1주일도 못되어서였다. 호주의 파란 하늘과 강렬한 태양빛이, 맑은 공기가, 마음놓고 들이킬 수 있는 수돗물이, 골목길이 아니고 확 트인 정갈한 주택가가, 핏대오르지 않고 소곤소곤 말을 하는 조용한 거리가, 공무원들의 친절이, 매사에 정확하고 속았다거나 속인다거나 하는 불안이 없는 합리적인 질서가, 노동일 한다고 깔보지 않는 사회가, 돈 있다고 뽐내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워지고 있었다. 24)

그리하여 그녀는 빨리 호주로 돌아 가고픈 마음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고 먹은 것은 소화가 안되어 배탈까지 나 기력을 잃은 초췌한 몰골로" 예정일자를 앞당겨 호주행 비행기에 오르고 만다. 이 쯤 되면 이민정착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적응"(Adaptation)의 상태에 이른 듯하다. 이민온 나라에 특별히 잘 적응한 이민의 경우, 실제로 이 단계에선 "문화적 역충격"(reverse culture shock)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이민초기에 겪게 되는 신세계에서의 문화적 충격보다 더 큰 고뇌를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25)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다.

---

23) 이효정, 「조국 나들이」, 『시드니의 여름노래』(1998, 교음사), 74-75면.

24) 이효정, Ibid, 75면.

25) ---indeed, to which you have in some degree acculturated, and you'll miss them when you pack up and return home---. You can also expect to experience "reverse culture shock" upon your return [to your home country]. In some cases, particularly where a person has adjusted exceptionally well to the host country, reverse culture shock may cause greater distress than the original culture shock. ; L.Robert Kohls, Ibi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것은 결국 자신은 "호주에서도 자기 모국에서도 이젠 겉도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自愧感 어린 思惟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이민성적표를 고려할 때, 아직은 문화적 역충격을 동반한 완전적응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에 돌아가서는 또 다시 한국의 흙 냄새와 소란스럽던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그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영원히 완전적응의 성적표를 기대하기 어려울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그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 이민생활의 완전적응이란 그녀의 소중한 한 부분의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이민을 통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을 잃는 것처럼 쓸쓸한 것이 또 있을까? 호주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다. 어른이 되어서, 적당히 때가 묻은 가슴으로 만나는 이민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과 똑 같을 수는 없다. 그저 빈 웃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도 타인일 뿐이다. 기쁠 때 잔을 부딪칠 사람은 이민 사회에도 많이 있지만, 슬플 때 같이 울어 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26)

말하자면 이민에서의 완전적응이란 이민 친구를 얻기 위한 고향 친구의 상실을 의미한다. 결국 그것은 自己正體性(Identity)의 손상에 다름 아니다. 순수한 이민의 입장에선 하루 빨리 이민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것은 그들의 생을 안정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고국에서의 정서적 영감에 기대어 내면세계의 은밀한 충동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또 다른 주변부를 이뤄가고 있는 호주의 한인작가들에게 있어 이는 문학적 소재의 근원적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민생활에서의 "완전적응"이란 영원히 이들과는 거리가 먼 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27)

---

26) 윤꿜립, 『시드니에는 시인이 없다』, 45면.

27) 호주에 이민와서 첫 사랑의 분신과 극적으로 해후하는 장면을 그린 손성훈의 소설 「고통의 유산」과 이민생활의 고달픔을 그린 「이름 그리고 운명」, 호주 속의 아시아,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젊은 날의 호기와 절제된 관념으로 풀어 헤쳐본 한기웅의 단편 「백수광부의 노래」 등의 작품들에서도 재호 한인작가들의 끊을 수 없는 고국과의 고리를 절감케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한인작가들과는 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이민문학을 일궈가고 있는 독보적인 한인 작가가 있다. 호주한인의 산문문학은 바로 이 소설가 돈오 김(Don'o Kim)을 빼곤 운위될 수조차 없을 것이다.

> 돈오 김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KBS에서 방송작가로 잠시 일하다가 1961년 호주로 오게 되었다. 아직 백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그는 시드니 대학과 N.S.W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한동안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N.S.W 주립도서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돈오 김이라는 필명으로 『내 이름은 티안(My Name is Tian)』이라는 장편소설을 발표하면서 최초의 아시아 출신 작가가 되었다. 이어서 『암호(Password)』라는 장편을 발표했고, 1984년에는 드디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맨(The Chinaman)』을 발표했다. --- 중략---- 돈오 김은 호주 정부로부터 '71년과 '73년 「Commonwealth Literary Fellowship」 등 여러 차례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
> 제4회 해외문학 심포지움에서 주제 발표를 한 시드니 대학 영문과의 마이클 와일딩 교수는 "돈오 김의 장편 『차이나맨』은 한 마디로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말했다. 와일딩 교수는 '88년 런던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차이나맨』은 호주문학이 이루어낸 쾌거로서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다"라고 격찬했다. 28)

그는 모든 작품을 영어로 발표하였고,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영국문학사에서 당당히 연방문학(Commonwealth Literature)의 일원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출신 작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호주문학사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호주 문학 속에서 돈오 김이 이처럼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원어민을 능가하는 출중한 영어실력에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문학의 원천을 고국인 한국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여느 한인작가들과 구별되는 돈오 김 문학의 두드러진 특색으로, 그만큼 그는 작품의 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시드니 근교의 아름다운 포구 "파통카"에 은거하며 "한 그루의 나무처럼, 이름 모를 새처럼, 긴긴 세월을" 조탁해 빚어낸 그의 작품들은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호주

28) 윤필립, 『시드니에는 시인이 없다』, 97-98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문학의 코스모폴리틱한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월남전의 참화 속에서 성숙해 가는 한 소년의 비애를 통해 아시아문제를 절묘한 문체로 제기하고 있는 그의 호주문단 데뷔작 『내 이름은 티안』(My Name is Tian; 1968, Angus & Robertson), 제2차 세계대전 무렵의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열강의 각축을 긴박감있게 다룬 『암호』(Password; 1974, Angus & Robertson), 그리고 대보초 해안(Great Barrier Reef)을 배경으로 청정사회 호주의 미래를 종교적 화두로 풀어내고 있는 『차이나맨』[29](The Chinaman; 1984, Hale & Iremonger)의 세 작품은 모두 작가의 고국인 한국과는 무관한 영문소설들이다.[30]

'정치적 음모'(A Political Intrigue)란 부제가 붙어 있는 그의 대표작 『암호』에 눈길을 돌려보자.

2차대전 무렵 중국의 지배하에 있던 중앙아시아의 타타리아[31]에 총독의 군사고문으로 부임하는 일본 유학생 출신의 엘리트 중국군 장교 '미스터 노'의 1인칭 시점을 통해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비열한 음모와 그 와중에서 정치적 희생물이 되고 마는 한 이상주의자의 좌절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

29) 특히 이 작품에 대해 호주 비평가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은 영문으로 쓰여졌으나 아시아문제를 다룬 두 작품에 비해, 직접 호주를 배경으로 호주의 문제를 깊이있게 다뤘기 때문이다.

30) 따라서 돈오 김의 작품들을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요한다. 영문으로 쓰여졌더라도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다룬 것이라면 한국문학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오 김이 한국 출신이 분명한 이상 그의 작품을 한인문학으로 분류하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상정된다.

31) 현재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으로 남아 있는 타타리아(Tartaria)의 실제 지도상의 위치는 중앙아시아에서 훨씬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의 서남부이다. 작가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작품의 배경인 타타리아는 실제의 위치가 아니라 현재 중국의 위구르 자치주인 신장지역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도 역사적 사실성과 작가의 상상력이 배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작품의 서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fact-curious mind would be able identify certain events and characters in these pages, but beyond that, I must warn, such effort would bear little fruit because Tartaria of Password existed only in my sense of reality and probably in no one else's.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무엇보다도 당대 정세에 정통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번뜩이는 추리력이 돋보이는 정치소설이다.

> Closer to everyday realities, politicians called it an explosive pivot among Russia, China, Japan and, to a lesser extent , The British, as it was in the late 'thirties when they all tried to assume authority in the region with the ideologies then in fashion. Tartaria, apart from its strategic signifiance, had enormous un-derground resources to be exploited. 32)

대학시절의 은사,히시 교수의 강력한 추천으로 총독의 군사고문이 되려 남경을 떠나 타타리아로 날아가는 "나"의 뇌리엔 약소국의 독립을 돕기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충만하다. 한 때 세계를 호령했던 징키스칸의 후예들이 제국주의의 조류를 탄 주변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약자로 전락해 방랑의 삶을 엮어가는 것이 그의 눈엔 못내 안스럽기까지 하다.

> I thought of those who had wandered into Tartaria retreading the Khan's path from the Red Sea, the Black Sea and the Persian Gulf, across the Altai Rangers, the Gobi and beyond the Pamirs and the Himalayas, and they now included me, coming not in the hope of raising goats and sons and daughters in the new land but in the fear of my own dream, in the fear of all that seemed possible within me. 33)

다행히 그가 만나본 타타리아의 총독(The Tupan)은 남다른 개혁의지를 가진 중국군 장성이다. 총독은 주변열강의 세력을 적절히 견제, 이용하면서 내실을 다지자는 "나"의 전략적 견해에 공감하고 전폭적 후원을 약속한다. 그러나 팽배한 민족주의 감정과 일본군부의 원조를 등에 업고 중국정부의 타타리아 지배에 반기를 든 "리 장군"의 반군세력이 막강한 무력으로 밀어닥칠 기미를 보이자 "나"는 스탈린의 소련군부를 이용하려는 총독을 설득하여 "리"일당의 행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인 일본군부의 힘을 빌리기

32) Don'o Kim,『Password』(1974,Angus&Robertson), - Author's Note -
33) Don'o Kim, Ibid, 4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로 하고 자청하여 만주로 간다. 만주 주둔 일본군 사령부에서 고급참모로 근무하는 대학동창 기또 대좌의 조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미행하는 중국정부의 밀정과 경찰을 따돌리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 비밀조직의 포로가 되고 맘으로써 기또와의 접선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계파를 초월한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을 확인한 그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타타리아로 돌아 왔을 땐, 비밀리에 코민테른에 가입한 총독이 스탈린의 힘을 빌어 이미 "리"일당을 진압한 뒤였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인 혼혈 아내를 앞세운 러시아 공사 카렌스키의 치밀한 공작과 중국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권주의를 꿈꾸는 총독의 은밀한 야망에서 비롯된 정치적 음모였음을 뒤늦게 깨달은 "나"는 총독의 강력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양측간의 조약 체결을 반대하며 결국 총독과 결별한다. 그리고는 총독지지 세력과 민족주의 민중세력의 군중시위로 촉발된 소요의 와중에서 정체불명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다.

> I felt the hot breath of the heat-wave over my face, then, amid the uproar of the crowd, I thought I heard a rifle shot. At the same moment, there was a flash between my eyes, and a sudden tremor in my spine. I dropped the gun. I hung onto the bridle in my hand. I reached out for the messenger's stooped back. But he was already moving out of my vision. ----- Then, I saw Kito looking down at me from the other side of the veil. I could no longer keep my eyes open but I raised my spread finger as high as I could reach. The clicking tongues grew louder and louder in my ears. [34]

"나"의 스러져가는 의식 속에서 대비되어지는 기또의 묘한 실루엣은 비정한 음모가 횡행하던 당대의 정치적 굴절상을 처연히 부각시키기에 족하다. 작가는 순수한 이상을 가진 한 젊은 휴머니스트를 무참히 짓밟은 아시아의 최근세사를 통해 고난에서 잉태된 반성적 사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35]

---

34) Don'o Kim, Ibid, 184번.

35) 『암호』는 훌륭한 주제의식과 치밀한 구성, 그리고 빼어난 문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담보로 한 정신사적 배경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렇게 볼 때 호주한인의 산문문학은 떠나 온 고국에 소재적 근원을 두고 있는 경우와 과감히 이에서 벗어나 호주문학 속으로 뛰어드는 돈오 김의 경우로 뚜렷이 대별된다고 하겠다.

Ⅲ. 結論

본고에서는 호주의 한인문학을 운문과 산문의 갈래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어쩌면 호주의 한인문학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앞으로의 열린 가능성에 더 기대를 걸어야 할 무한한 잠재력을 담보하고 있는 까닭이다. 일천한 이민사에서 기인한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호주의 한인문학이 찬란히 開花할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본다.

첫째, 호주 한인의 운문문학 작품들은 이민에서 비롯된 심리적 공황과 정착의 과정을 호주사회의 특수성에 의탁해 내성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호주한인의 삶이 정착과정에서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해소하면서 점차 적응의 단계로 들어서는 도정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현실의 정서적 반영에 충실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호주 한인의 산문문학은 운문문학의 서정성을 보다 역동적으로 전환시키면서 다양한 삶의 편린들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소박한 일상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사적 허구'(plausibility)의 세계로 접어들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호주문학 속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발군의 작가, 돈오 김을 가지게 된 것은 호주 한인문학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자료의 미비와 연구자의 무능에서 비롯된 본고의 문제점들은 후고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2000.8.28) 필자와의 면담에서 돈오 김은 현재, 남북통일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태극』(Cross Circle)이 거의 탈고단계에 있음을 시사해 기대를 모으게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